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양지혜*, 박혜영**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파악하고,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6개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 중도시각장애인 70명을 모집하였다. 음악 활용, 음악 활용 목적, 개인변인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설문지 중 불충분한 응답 9부를 제외한 총 61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시각장애인은 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집에서 라디오를 주로 사용하여, 빠르고 경쾌한 대중가요를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 활동에서 이들은 추억을 회상하는 가사의 대중가요를 주로 부르고, 노래 활용 빈도가 음악 감상이나 악기연주 활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악기 연주하기에서 연주가능하고 선호하는 악기는 모두 현악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음악 활용 목적은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 성취감, 소속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에는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전맹이 저시력에 비해 음악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실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이 음악을 활용하여 소속감을 얻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중도시각장애인, 음악 활용, 음악 선호, 음악 활용 혜택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음악치료사, 음악중재전문가 (KCMT)

** 교신저자: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 (legendphy@kosin.ac.kr)

I. 서론

최근 등록 시각장애인 현황은 2010년 249,259명, 2011년 251,258명, 2012년 252,564명, 2013년 253,0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시각장애는 그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구분하는데(Bak, 2014; Kim, 2010),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에 비해 국내 시각장애인의 90.8%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많다(Byeon, 2006). 후천적 원인에 의한 시각장애인은 정상적 시력을 통한 시각적 경험을 가지고 일정 시기까지 비장애인으로 살아왔으나, 질병(53.5%) 혹은 사고(37.3%) 등에 의해 점진적 또는 급성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1). 이처럼 삶의 과정 중에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을 중도시각장애인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기 이후 시력에 손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기도 한다(Son, Heo, & Park, 2009).

중도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Jessup, Cornell, & Bundy, 2010),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Jo, 2007). 장애수용 과정에서 충격, 부인, 분노, 비판 등의 부정적 심리 문제를 경험하고(Shin, 2005), 실명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난 뒤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한다(Kim, 2010). 또한, 이동권의 제약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아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동적 경향이 나타나고, 문화생활이나 사회활동, 진로선택 혹은 재취업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Gold, Shaw, & Wolffe, 2010). 특히, 조기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들은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비교할 때, 일상생활 적응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Lee, Park, & Kwak, 2003), 장애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감, 상실감, 우울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hin, 2005).

이러한 심리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은 시각 상실에 따른 대체 감각 활용 과정에서 청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도록 기초재활훈련을 받게 된다(Upton, Bush, & Taylor, 1998).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을 보상하는 대체 감각으로 청각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Codding, 2000; Eitan, Ornoy, & Granot, 2012; Molloy-Daugherty, 2013), 중도에 실명한 중도시각장애인은 이와 같은 보상, 대체 감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나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이러한 감각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ark, 2015).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높은 청각 의존도와 관련하여(Matsumoto & Willingham, 2009), 그들의 음악적 능력 혹은 음악 활용 및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간 비교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음악적성 및 능력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Gougoux et al., 2004; Hamilton, Pascual-Leone, & Schlaug, 2004), 이를 시각 손

상에 대한 보상 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liss, Kujala, & Hämäläinen, 2004; Rokem & Ahissar, 2009). 특히 시각 기능 손상에 대한 뇌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보상 작용은 청각 피질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Collignon, Voss, Lassonde, & Lepore, 2009; Doucet et al., 2005; Röder, Rösler, & Neville, 2001), 이러한 청각적 민감성은 후천적 시각장애인보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Collignon et al., 2009; Gougoux et al., 2004; Stevens & Weaver, 2009), 음악 교육 경험 정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Wan, Wood, Reutens, & Wilson, 2010).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음악을 보행을 위한 청각 자극(Molloy-Daugherty, 2013), 여가활동, 일반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연구도 있다(Park, Chong, & Kim, 2015). 특히, 국내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수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음악 관련 활동을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Ham & Kim, 2004), 졸업 후에도 음악 동아리(보컬밴드, 합창단, 기타 동아리 등)를 통해 음악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Jeon, 2009).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음악 활동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며, 일반인과의 소통 수단으로도 음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Chong, & Bak, 2015).

반면 시각장애인들의 청각 지각력은 일반인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Madsen & Darrow, 1989; Stankov & Spillsbury, 1978). 시각장애인의 음악적성을 환경실의 한국음악적성검사(KMAT)를 사용하여 일반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 집단 내에서는 전맹이 저시력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두 집단을 비교한 음악적성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hin, 2009). 이러한 주장의 차이는 시각의 손상으로 인한 청지각 능력이 실명시기에 따른 경험, 교육, 재활 훈련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Röder & Rösler, 2003; Thinus-Blanc & Gaunet, 1997).

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과 선호, 음악적 태도에 대한 여러 연구에 비해 중도에 실명한 중도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악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다가 질병이나 사고 혹은 다른 원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잔존 감각들을 발달시키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안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음악 활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 경험은 개인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Hudson, 2006), 개인 변인과 음악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음악훈련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Kreutz, Ott, Teichmann, Osawa, & Vaitl, 2007; McNamara & Ballard, 1999; Nater, Krebs, & Ehlert, 2005). 또한 시각장애의 개인 변인에 따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시각손상시기, 손상 정도에 따른 음악활용의 차이를 분

석하여 장애와 이에 관련된 항목들을 개인 변인으로 분석하였다(Lim & Bak, 2013).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성인기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Park, 2015).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Park, Chong, & Kim, 2015). 더욱이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음악은 잔존감각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음악 활동을 통해 부적 정서 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즉각적인 보상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Rostohar, 2006). 노래 만들기 활동은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Lee, D., 2010), 음악 감상 활동은 이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 & Chong, 2015). 따라서 성인기의 중도시각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감과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빈도, 방법, 목적, 선호 등)을 조사하고 이를 개인변인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이 활용하는 음악 활동과 선호하는 음악의 특성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음악 활용의 목적과 개인변인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현황 및 활용 목적은 어떠한가?

둘째,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성별, 실명기간, 장애정도)에 따른 음악 활용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6개의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와 면접하고 기관에서의 동의를 획득한 후 기관 이용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이용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과 절차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사고 또는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실명한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로, 중년기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령」 제2조 관련 시각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거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 총 7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61명의 응답이 분석되었으며 이에 설문지 회수율은 87.1%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61)

Characteristics	Category	n (%) or M ± SD
Gender	Male	33(54.1)
	Female	28(45.9)
Age(years)	-	53.35 ± 5.19
Age at onset	-	29.29 ± 11.48
Duration of disability	-	24.93 ± 7.72
	None	21(34.4)
Music education ^a	Less than 1 year	34(55.8)
	More than 3 years	6(9.8)
Degree of vision	Blindness	32(52.5)
	Low vision	29(47.5)
	Level 1	37(60.6)
Level of disability	Level 2	8(13.1)
	Level 3	16(26.2)

^a Years of extracurricular music-education including musical instrument playing, and singing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및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음악 활용에 대한 19문항, 개인배경정보에 대한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음악태도 및 활용에 대한 비교연구’(Park, Chong, & Kim, 2015), ‘국내 시각장애인 음악 전공자의 실태조사연구’(Lee, 2000),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 감상 교육 실태와 선호도연구’(Park & Lee, 2013)에 사용된 질문지를 참조하여 중도시각장애인의 환경에 맞춰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을 구안하고 음악치료전문가 2인(시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10년 이상, 시각장애인 대상 음악교육 7년 이상)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estionnaire Structure

Variable	Subcategory	Questions per item
Uses of music	Frequency	3
	Place	3
	Medium	3
	Purpose5	5
	Genre and mood	3
	Lyrics	1
	Timbre	1
	Demographic information	Gender and age
	Degree of vision	1
	Level of disability	1
	Age at onset	1
	Music education	1
Total		25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및 선호도에 관한 국내외 논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도구인 설문지를 구성한 후에 설문지 내용이 연구 목적을 잘 반영하는지,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였는지, 설문방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복지관 담당자에게 설문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예비설문에 대한 응답자 모두 ‘잔존 감각’이라는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선호하는 노래에 대한 질문에서 노래 제목을 작성하는 주관식 질문을 삭제하고 노래 가사내용에 대한 보기항목으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6개소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중도에 실명한 만 40세 이상의 성인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점자(braille)로 변환된 점자 설문지를 제공하거나, 잔존 시력을 보유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활자 크기를 18 포인트로 제작한 목자 설문지(Bak,

2014)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설문지를 낭독하기를 요구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연구자가 1명씩 개별 설문 또는 2-3명에게 질문을 하고, 항목을 선택할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형태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정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항목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동의 활용 결과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을 넘게 되면 카이제곱검정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셔의 정확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은 일곱 순위합 검정(Wilcoxon's rank sum test)을 실시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Ⅲ. 결 과

1.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1) 음악 활동에 따른 활용 결과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은 음악 감상, 노래, 악기 연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며, 3개 활동 시 모두 대중가요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들의 음악 감상 시간은 하루 1시간미만이 가장 많았고(50.8%), 감상 장소는 주로 집이었으며(73.7%), 감상하는 음악은 빠르고 경쾌한 곡(42.6%)이 느리고 서정적인 곡(2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래 활동은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 활동에 비해 참여 빈도수가 높았으며, 서정적인 분위기(45.9%)를 선호하였으며, 가사도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44.5%)을 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 연주 활동에서는 악기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28명의 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연주 활동을 하는 중도시각장애인의 50%가 복지관 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악기 연주 시 빠르고 경쾌한 곡을 선호하며(46.4%), 주로 사용하는 악기는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관악기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Table 3> The Results of Music Uses During Each Type of Musical Activity (N = 61)

Item	Listening	n (%)	Item	Singing	n (%)	Item	Playing ^a	n (%)
Frequency	Less than 1 hr	31(50.8)	Frequency	Less than once/wk	13(21.3)	Frequency	Less than once/wk	18(64.3)
	1-2 hrs	19(31.1)		2-3 times/wk	26(42.6)		2-3 times/wk	5(17.8)
	2-3 hrs	4(6.3)		4-5 times/wk	14(23.0)		4-5 times/wk	3(10.7)
	> 3 hrs	7(11.8)		> 6 times/wk	8(13.1)		> 6 times/wk	2(7.2)
Place	At home	45(73.7)	Place	At home	14(22.9)	Place	Welfare center	14(50.0)
	Welfare center	5(8.2)		Welfare Center	12(19.7)		Educational institution	5(17.9)
	Concert hall	2(3.3)		Karaoke	15(24.6)		Religious institution	6(21.4)
	Religious institution	9(14.8)		Religious institution	20(32.8)		Club institution	3(10.7)
Genre	Korean pop	38(62.2)	Genre	Korean pop	42(68.8)	Genre	Korean pop	16(57.1)
	International pop	6(9.8)		International pop	2(3.3)		International pop	5(17.9)
	Classical	7(11.4)		Song	4(6.5)		Classical	0(0.0)
	Religious music	10(16.6)		Religious music	13(21.4)		Religious music	7(25.0)
Mood	Speedy & rhythmic	26(42.6)	Mood	Speedy & rhythmic	15(24.6)	Mood	Speedy & rhythmic	13(46.4)
	Slow & lyrical	14(23.0)		Slow & lyrical	28(45.9)		Slow & lyrical	6(23.1)
	Grand & dynamic	2(3.3)		Appealing & passionate	12(19.7)		Appealing & passionate	2(7.1)
	Repetitive & stable	19(31.1)		Repetitive & stable	6(9.8)		Repetitive & stable	7(25.0)
Device	Radio	24(39.3)	Lyrics	Memories	27(44.5)	Main instrument	Keyboard	7(25.0)
	Braille notebook	6(9.8)		Courage & hope	20(32.6)		String	9(32.2)
	Portable player	12(19.7)		Grief & mourning	13(21.3)		Percussion	8(28.6)
	Computer	19(31.2)		Social issue	1(1.6)		Wind	4(14.4)

Note. The highest frequency response of each item is highlighted in bold.

^a Responses of 28 subjects with prior experience in playing instruments were included.

2)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목적

본 연구에서 중도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활용하는 목적과 관련한 조사항목은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의 5개 항목이었다. 음악의 활용목적으로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항목의 선택과 구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연구(North, Hargreaves, & Hargreaves, 2004)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성취감과 소속감 항목은 시각장애인과 음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성취감 항목은 ‘음악 활동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내용으로(Lee, D., 2010), 소속감 항목은 ‘음악 활동은 소속된 집단에 적응하고 집단 구성원과의 일체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를 근거로 하였다(Park, Chong, & Kim, 2015).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시각장애인

이 음악을 활용하는 목적은 기분전환($M = 4.35$, $SD = 0.60$)이 가장 높았고, 즐거움($M = 4.18$, $SD = 0.79$), 편안함($M = 4.14$, $SD = 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취감($M = 3.59$, $SD = 0.90$)과 소속감($M = 3.23$, $SD = 1.13$)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Table 4> 참조).

<Table 4> Psycho-social Purposes of Music Uses ($N = 61$)

Subcategory	n (%)					$M \pm SD$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Comfort	0(0.0)	2(3.1)	11(17.2)	26(42.2)	22(37.5)	4.14 \pm 0.81
Change in mood	0(0.0)	0(0.0)	4(6.3)	32(51.6)	25(42.2)	4.35 \pm 0.60
Joy	1(1.6)	1(1.6)	6(9.4)	32(51.6)	21(35.9)	4.18 \pm 0.79
Achievement	0(0.0)	7(12.5)	19(31.3)	25(40.6)	10(15.6)	3.59 \pm 0.90
Belonging	3(4.7)	13(21.9)	15(24.9)	24(39.1)	6(9.4)	3.23 \pm 1.13

2. 개인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의 차이

1)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의 빈도, 방식, 선호 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 활동 참여 빈도는 남녀 모두 '1시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음악 활용 매체는 라디오, 선호 활동은 음악 감상이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음악 분위기는 빠르고 경쾌한 곡을 선호하였으며 선호 음색은 현악기로 밝혀졌다. 장애정도(전맹, 저시력)와 실명기간(25년 미만, 25년 이상)에 따른 음악 활용 빈도, 활용 방식, 선호 활동, 선호 분위기, 선호 음색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참조).

2)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리커트 3점 척도를 사용하여 긍정(그렇다, 3점), 중립(보통이다, 2점), 부정(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일록순 순위합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 소속감의 순으로 음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정도 변인에서는 전맹과 저시력 모두 음악사용 목적에 대한 수치가 기분전환과 즐거움에서 높

<Table 5> Chi-square Test Results of Music Use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N = 61)

Subcategory	Gender			Degree of vision		Duration of disability				
	Male (n = 33) N (%)	Female (n = 28) N (%)	χ^2	Blindness (n = 32) N (%)	Low Vision (n = 29) N (%)	χ^2	Less than 25 years (n = 34) N (%)	More than 25 years (n = 27) N (%)	χ^2	
Frequency	< 1 hr	20(32.9)	11(18.0)		17(27.9)	14(23.0)	16(26.2)	15(24.6)		
	1-2 hrs	9(14.6)	10(16.4)	4.032	7(11.5)	12(19.7)	3.881	13(21.3)	6(9.8)	3.980
	2-3 hrs	2(3.3)	2(3.3)		3(4.9)	1(1.6)		1(1.6)	3(4.9)	
	> 3 hrs	2(3.3)	5(8.2)		5(8.2)	2(3.3)		4(6.4)	3(4.9)	
Medium	Radio	12(19.7)	12(19.7)		13(21.3)	11(18.0)	14(23.0)	10(16.4)		
	Braille information instrument	4(6.4)	2(3.3)	2.990	5(8.2)	1(1.6)	6.477	2(3.3)	4(6.4)	2.451
	Portable player	5(8.2)	7(11.5)		3(4.9)	9(14.6)		5(8.2)	7(11.5)	
	Computer	12(19.7)	7(11.5)		11(18.0)	8(13.1)		13(21.3)	6(9.8)	
Preference	Listening to music	23(37.7)	16(26.2)		20(32.9)	19(31.2)	22(36.1)	17(27.9)		
	Singing	8(13.1)	9(14.6)	2.643	10(16.4)	7(11.5)	1.177	10(16.4)	7(11.5)	.826
	Playing instruments	2(3.3)	3(4.9)		2(3.3)	3(4.9)		2(3.3)	3(4.9)	
	Creation	0(0.0)	0(0.0)		0(0.0)	0(0.0)		0(0.0)	0(0.0)	
Mood	Speedy & rhythmic	13(21.3)	13(21.3)		12(19.7)	14(23.0)	15(24.6)	11(18.0)		
	Slow & lyrical	8(13.1)	6(9.8)	2.734	7(11.5)	7(11.5)	1.620	9(14.6)	5(8.2)	7.227
	Grand & dynamic	1(1.6)	1(1.6)		1(1.6)	1(1.6)		2(3.3)	0(0.0)	
	Repetitive & stable	11(18.0)	8(13.1)		12(19.7)	7(11.5)		8(13.1)	11(18.0)	
Timbre	Keyboard	5(8.2)	12(19.7)		9(14.6)	8(13.1)	10(16.4)	7(11.5)		
	String	15(24.6)	9(14.6)	8.732	13(21.3)	11(18.0)	1.257	14(23.0)	10(16.4)	1.450
	Percussion	8(13.1)	3(4.9)		6(9.8)	5(8.2)		7(11.5)	4(6.4)	
	Wind	5(8.2)	4(6.4)		4(6.4)	5(8.2)		3(4.9)	6(9.8)	

a. Fisher's exact test

게 나타났다. 한편 두 그룹 모두 성취감이나 소속감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소속감 항목은 저시력이 전맹에 비해 낮은 수치($Z = -2.805$, $p < .05$)를 나타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명기간에서는 실명기간이 25년 미만인 집단과 25년 이상인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는데, 실명기간에 상관없이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성취감과 소속감은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장애정도 변인에 따른 결과와 유사하게 실명기간 변인에서도 소속감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5년 이상인 집단이 실명기간이 2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치($Z = -2.062$, $p < .05$)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Table 6 > 참조).

<Table 6> Psycho-social Purposes of Music Uses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N = 61)

Subcategory	Gender		Z	Degree of disability		Z	Duration of disability		Z
	Male (n = 33) M ± SD	Female (n = 28) M ± SD		Blindness (n = 32) M ± SD	Low Vision (n = 29) M ± SD		Less than 25 years (n = 34) M ± SD	More than 25 years (n = 27) M ± SD	
Comfort	2.72 ± 0.51	2.82 ± 0.47	-0.922	2.74 ± 0.51	2.80 ± 0.49	-0.675	2.87 ± 0.33	2.64 ± 0.62	-1.676
Change in mood	2.93 ± 0.24	2.92 ± 0.26	-0.169	2.91 ± 0.28	2.96 ± 0.19	-0.731	2.90 ± 0.29	2.96 ± 0.18	-0.861
Joy	2.81 ± 0.46	2.90 ± 0.26	-0.995	2.85 ± 0.35	2.88 ± 0.43	-0.726	2.90 ± 0.29	2.82 ± 0.47	-0.668
Achievement	2.27 ± 0.76	2.60 ± 0.62	-1.827	2.45 ± 0.65	2.38 ± 0.80	-0.131	2.27 ± 0.76	2.10 ± 0.95	-0.563
Belonging	2.15 ± 0.87	2.25 ± 0.84	-0.438	2.45 ± 0.78	1.84 ± 0.83	2.805*	2.61 ± 0.29	2.21 ± 0.78	-2.062*

a. Wilcoxon rank sum test

* $p < .05$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살펴보고,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활용하는 음악 활동 특성, 양식, 선호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음악 활용의 목적과 개인변인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타인과의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음악 활동의 경우 음악 감상, 노래, 악기연주 모두 활용하는 시간과 참여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음악을 활용하는 장소가 대부분 집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Gold et al., 2010; Kirchner, McBroom, Nelson, & Garves, 1992),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서도 이들의 수동적인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수동적 형태의 음악 활동에서 능동적 형태의 음악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장애에 적응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 상실에 따른 대체 감각인 청각 자극 즉, 음악을 제공하고, 이들의 보행 및 방향정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탐색하는 일차적 감각 정보로서 청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Molloy-Daugherty, 2013) 음악을 매개로 한 체계적인

훈련,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도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는 대중가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인 대상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North et al., 2004; Park, Chong, & Bak, 2015; Seo, 2005). 반면 선호 노래 가사 내용의 경우 중도시각장애인은 과거를 추억하는 가사의 노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래 활동이 중도시각장애인들에게 장애 발생 이전의 건강한 삶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환기시켜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재활 동기를 고취시키는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Jung, 2015; Lee, D., 2010). 다시 말해 자신의 변화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및 심리적 상실감(Kim & Kim, 2008)을 겪는 중도시각장애인들에게, 노래를 매개로 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의 필요 없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Chong, 2015) 이들의 유능성, 자신감, 효능감 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 변인(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속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음악 활용 목적 중 기분전환, 즐거움, 편안함 항목은 개인 변인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음악이 다른 감각 자극에 비해 정서 변화를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Laukka, 2007; Spreckelmeyer, Kutas, Urbach, Altenmüller, & Münte, 2006)과, 실제 시각장애인들 또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 변인인 장애정도에 따라 음악 활용 목적 중 소속감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시각 손상정도가 높은 전맹이 저시력에 비해 음악을 통한 소속감을 얻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인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시각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음악을 개인적 차원인 자기표현(self-expression)이나 자기만족(self-amusement)의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음악이 집단구성원과의 교류, 특히 소속감(belonging)을 가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Park, Chong & Kim, 2015)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시각 손상 정도가 높은 시각장애인이 집단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와 지지감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도시각장애인이 겪는 소외감, 고독감, 상실감 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개별보다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중재를 시행할 때, 이들의 개인적 특성 즉, 연령, 성별, 음악배경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등 장애관련 특성들이 심도 있

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과 목표 설정에서는 청각적 단서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션 진행에서도 이들의 특성에 따라 청각 촉각, 언어적 지시에 대한 집중도 뿐만 아니라 음악적 특성 즉, 선호와 친숙성, 음악적 배경, 음색, 악기 편성 등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치료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잔존 감각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의 차이를 살펴보면 실명기간이 25년 미만인 집단이 실명기간이 25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소속감을 위한 음악 활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시각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 활용이 실명시기에 따른 경험, 교육, 재활 훈련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Röder & Neville, 2003; Röder & Rösler, 2003; Thinus-Blanc & Gaunet, 1997). 또한 최근 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시각장애인의 경우 실명기간이 오래될수록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을 활용하는 보상 기술을 배웠거나 이전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에 적응하였기 때문에(Lee, T., 2010) 음악을 통해 집단 내에 긴밀한 유대와 상호 지지의 경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실명이후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활동성이 낮아져 집단 음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감소하여, 결국 그룹음악 활동에 대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실명기간과 음악의 활용 목적이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써(Kim, 2010),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을 구상할 때 장애정도와 실명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도시각장애인이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음악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장애관련 변인에 따라 음악 활용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집에서 감상 위주의 수용적 음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써 충족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소통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그룹음악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상실감과 고립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들을 음악을 통해 전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정도와 실명기간이 음악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도시각장애인의 개인변인과 음악 활용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관련변인에 따라 음악에 대한 접근방식에 차이를 두고, 장애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의 목적에 맞춰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중도시각장애인 대상 음악 적용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표본이 적고 편의 추출로 대상자가 모집되어 연령, 장애등급 등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분포도가 고르지 않고,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의 차이를 일반

화 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표본수를 늘려 연령대별로 추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등급별 대표성 또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실명시기를 25세를 기준하여 전후로 나누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실명시기 21-30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중간 연령인 25세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실명 시기를 조사할 당시 응답자들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점진적으로 손상되었을 경우 시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중도시각장애인의 실명시기와 기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화된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는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었으며 특히 60대 초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와 질병으로 성인기에 실명한 시각장애인 인구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노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인 문제와 함께, 시각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Wang, Mitchell, Smith, Cumming, & Attebo, 1999). 따라서 시각장애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잔존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음악 활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뿐만 아니라 음악 활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중 성별, 장애정도, 실명기간에 초점을 두고 음악 활용을 조사였으므로 향후에는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 실명원인 등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중년의 성인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음악 활용을 살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Bak, S. H. (2014). *Understanding and education for visually impaired children* (3rd ed.). Seoul: Hakjisa.
- Bliss, I., Kujala, T., & Hämäläinen, H. (2004). Comparison of blind and sighted participants' performance in a letter recognition working memory task. *Cognitive Brain Research*, 18(3), 273-277.
- Byeon, Y. C. (2006). *2005 Survey on disabili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ng, H. J. (2015).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Codding, P. A. (2000). Music therapy literature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blind and severely visually impaired persons: 1940-2000. In D. S. Smith (Ed.),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procedures: Documentation of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pp. 159-198). Silver Spring, MD: The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Inc.
- Collignon, O., Voss, P., Lassonde, M., & Lepore, F. (2009). Cross-modal plasticity for the spatial processing of sounds in visually deprived subject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192(3), 343-358.
- Doucet, M. E., Guillemot, J. P., Lassonde, M., Gagné, J. P., Leclerc, C., & Lepore, F. (2005). Blind subjects process auditory spectral cues more efficiently than sighted individual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160(2), 194-202.
- Eitan, Z., Ornoy, E., & Granot, R. Y. (2012). Listening in the dark: Congenital and early blindness and cross-domain mappings in music. *Psychomusicology*, 22(1), 33-45.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1). *Survey on current state of disabled workers* (Report No. 11-1352000-000568-12). Seongnam: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Institute.
- Gold, D., Shaw, A., & Wolffe, K. (2010). The social lives of Canadian youths with visual impairm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4(7), 431-443.
- Gougoux, F., Lepore, F., Lassonde, M., Voss, P., Zatorre, R. J., & Belin, P. (2004). Neuropsychology: Pitch discrimination in the early blind. *Nature*, 430(6997), 309.
- Ham, D. H., & Kim, J. H. (2004). A study on the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0(1), 91-117.
- Hamilton, R. H., Pascual-Leone, A., & Schlaug, G. (2004). Absolute pitch in blind musicians.

- Neuroreport*, 15(5), 803-806.
- Hudson, R. (2006). Regions and place: Music, identity and pl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5), 626-634.
- Jeon, H. S. (2009). *A study on the financial support for organizations of handicap people's art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essup, G. M., Cornell, E., & Bundy, A. C. (2010). The treasure in leisure activities: Fostering resilience in young people who are blind.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4(7), 419-430.
- Jo, S. J. (2007). Counseling clients with disabilities: Psychosocial adjustment to disability, potential problems presented, and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8(2), 493-508.
- Jung, Y. R. (2015). Effects of song discussion on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in stroke patient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2(1), 43-64.
- Kim, K. S., & Kim, T. H. (2008). Accept reality through the middle of the visually impaired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4(1), 777-788.
- Kim, Y. I. (2010). *Theory on welfare for blind people*. Seoul: Jipmundang.
- Kirchner, C., McBroom, L., Nelson, K., & Graves, W. (1992). *Lifestyles of employed legally blind people: A study of expenditures and time use*. Starkville, MS: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Blindness and Low Vision.
- Kreutz, G., Ott, U., Teichmann, D., Osawa, P., & Vaitl, D. (2007). Using music to induce emotions: Influences of musical preference and absorption. *Psychology of Music*, 36(1), 101-126.
- Laukka, P. (2007). Uses of music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2), 215-241.
- Lee, D. E. (2010). *A case study on therapeutic song writing for enhancement of self-efficacy in adults who have visually-impaired in halfw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E. (2000). *A research on the blind majored music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I. S., & Park, S. K., & Kwak, J. Y. (200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gration of visually impaired people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4, 149-176.
- Lee, T. H.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independent living competence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6(4), 27-46.

- Lim, H. J., & Bak, S. H. (2013). Study on musical interest and aptitude for musical achievement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9(2), 217-228.
- Madsen, C. K., & Darrow, A. A.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ptitude and sound conceptualiza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Music Therapy*, 26(2), 71-78.
- Matsumoto, D., & Wilingham, B. (2009). Spontaneous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of congenitally and non congenitally blin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2), 1-10.
- McNamara, L. & Ballard, M. E. (1999). Resting arousal, sensation seeking, and musical prefer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ical Monographs*, 125(3), 229-25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Registered disability statu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olloy-Daugherty, D. (2013). *Rhythmic auditory-motor entrainment of gait patterns in adults with blindness or severe visual impair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Kansas City, USA.
- Nater, U. M., Krebs, M., & Ehlert, U. (2005). Sensation seeking, music preference, and psychophysiological reactivity to music. *Musicae Scientiae*, 9(2), 224-238.
- North, A. C., Hargreaves, D. J., & Hargreaves, J. J. (2004). Use of music in everyday life. *Music Perception*, 22(1), 41-77.
- Park, H. N., & Lee, H. G. (2013). The survey on status of the music appreciation education and preference of music apprecia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ment.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9(4), 1-25.
- Park, H. Y. (2015). *Comparative study of emotion cognition and experience to music of adults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 Y., & Chong, H. J. (2015). A difference in the emotional response to music between adults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1(3), 1-17.
- Park, H. Y., Chong, H. J., & Bak, S. H. (2015). Differences in verbal description of music listening experiences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total blindness and typical vis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6(4), 149-171.
- Park, H. Y., Chong, H. J., & Kim, S. J. (2015).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itudes and uses of music by adults with visual impairm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 109(4), 303-316.
- Röder, B., & Neville, H. (2003). Developmental functional plasticity. In J. Grafman & I. H. Roberson (Eds.), *Handbook of neuropsychology* (2nd ed.). (pp. 231-270) Oxford: Elsevier Science.
- Röder, B., & Rösler, F. (2003). Memory for environmental sounds in sighted, congenitally blind and late blind adults: Evidence for cross-modal compen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50(1), 27-39.
- Röder, B., Rösler, F., & Neville, H. J. (2001). Auditory memory in congenitally blind adults: A behavioral-electrophysiological investigation. *Cognitive Brain Research*, 11(2), 289-303.
- Rokem, A., & Ahissar, M. (2009). Interactions of cognitive and auditory abilities in congenitally blind individuals. *Neuropsychologia*, 47(3), 843-848.
- Rostohar, J. W. (2006). *The effects of a multiphase music therapy intervention on the acquisition of social skills among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Two case stu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Kansas City, USA.
- Seo, S. M. (2005). A study on the behavior of adolescence's music listening.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2(2), 1-14.
- Shin, G. S. (2005). *A life history research of a person who lost his sight in mid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Y. S. (2009). Research on "Aptitude of Music" between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by KMAT.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5(4), 165-181.
- Son, Y. S., & Heo, H. M., & Park, Y. S. (2009). *Those with acquired disability and their family*. Seoul: Beomronsa.
- Spreckelmeyer, K. N., Kutas, M., Urbach, T. P., Altenmüller, E., & Münte, T. F. (2006). Combined perception of emotion in pictures and musical sounds. *Brain Research*, 1070(1), 160-170.
- Stankov, L., & Spilsbury, G. (1978). The measurement of auditory abilities of blind, partially sighted, and sighted childre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4), 491-503.
- Stevens, A. A., & Weaver, K. E. (2009).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uditory cortex in the blind. *Behavioral Brain Research*, 196(1), 134-138.
- Thinus-Blanc, C., & Gaunet, F. (1997). Representation of space in blind persons: Vision as a spatial sense? *Psychological Bulletin*, 121(1), 20-42.

- Upton, L. R., Bush, B. A., & Taylor, R. E. (1998).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of adventitiously blind male veterans with and without diabetes mellitu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2(9), 656-665.
- Wan, C. Y., Wood, A. G., Reutens, D. C., & Wilson, S. J. (2010). Early but not late-blindness leads to enhanced auditory perception. *Neuropsychologia*, 48(1), 344-348.
- Wang, J. J., Mitchell, P., Smith, W., Cumming, R. G., & Attebo, K. (1999). Impact of visual impairment on use of community support services by elderly persons: The blue mountains eye study. *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 40(1), 12-19.

- 게재신청일: 2016. 04. 22.
- 수정투고일: 2016. 04. 27.
- 게재확정일: 2016. 05. 19.

Uses of Music by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Yang, Ji Hye^{*}, Park, Hye Young^{**}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eople who became blind midway through life used music and how these uses di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Sixty-one late-blind adults aged 40 to 60 years attending six welfare centers for the blind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25-question survey in Braille on music utilization and preference, as well as the purpose of music utilization. The response rate was 87.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listening preference, they reported preferring to listen to upbeat popular music on the radio when resting at home. They liked to sing along to lyrics reminiscent of personal memories. String instruments were preferred when playing an instrument. With regard to the reason for using music, inducing mood change was found to be the biggest reason, followed by seeking enjoyment, comfort, sense of achievement, and sense of belonging. Third, for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individual factors, such as gender, level of disability, and period without eyesight,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differences. Last, participants were found to obtain a higher sense of belonging through music compared to those having low vision. Regarding time without eyesight, it appeared that the shorter the period, the higher the sense of belonging participants had from utilizing music, and vice versa.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information for organizing an effective music program that can meet the needs and demands of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Keywords :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use of music, music preference, benefits of music uses*

* Siloam Center for the Blind,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Therapy, Kosin University
(legendphy@kosin.ac.kr)